

羅唐戰爭의 전개와 報德國

신은이*

- I. 머리말
- II. 「薛仁貴書」와 「答薛仁貴書」
- III. 石門 전투와 對唐 謝罪使 파견
- IV. 674년 唐의 新羅 침공 선언과 報德國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나당전쟁기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둘러싼 신라와 당 사이의 갈등과 그 추이를 살폈다. 670년 신라는 백제 고지 점령을 본격화하는 한편,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신라의 행보에 대해 당은 「설인귀서」를 보내 신라가 안승을 외원으로 삼아 백제 고지를 점령해 나감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에 대해 신라는 「답설인귀서」에서 백제 고지 점령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주장하였지만, 당에 대한 배반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설인귀서」와 「답설인귀서」의 내용을 대조해 보았을 때, 당시 나당관계에서 외교적 쟁점이 된 ‘신라의 당에 대한 배반 행위’는 신라와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의 연합에 대한 것이었다.

* 대구광역시청 학예연구사 / ptygirls1@hanmail.net

하지만 672년 고구려 고지에서 전개된 석문전투에서 신라는 크게 패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 연합한 사실까지 당에게 밝혀졌다. 이때 신라는 대당 사죄사를 파견하여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 연합한 사실에 대하여 당에게 사죄하였다.

당은 674년에 ‘신라가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받아들여 백제 땅을 지키게 하였다’는 사실, 즉 보덕국을 명분으로 문무왕의 관작을 삭탈하고 신라에 대한 공격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보덕국은 고구려의 체제와 제사를 계승하였고, 신라에 의해 안승은 고구려왕으로 책봉되었으므로 사실상 고구려가 재건된 것과 마찬가지였다. 당은 오랜 시간에 걸쳐 공략한 고구려가 재건된 것에 대해 경계하였을 것이다. 675년 신라는 대당 사죄사를 파견하였고, 곧이어 문무왕의 관작은 회복되었다. 하지만 676년 기벌포 전투까지 신라와 당 사이에는 여러 번 교전이 이어졌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신라의 백제 고지 점령이 곧 당의 신라 공격으로 이어졌다고 보았다. 이 글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나당전쟁에서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둘러싼 신라와 당 사이의 갈등은 점차 증폭되어 갔고, 결국 당은 674년 보덕국을 명분으로 신라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당시 토번과 고구려 고지에 대한 안정적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당이 서둘러 신라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게 된 것은 보덕국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부흥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을 것이다.

기존 나당전쟁에 관한 연구들이 백제 고지를 둘러싼 신라와 당 사이의 갈등을 군사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면, 이 글은 외교문서, 대당 사죄사 파견과 같은 외교적 사실도 함께 고찰하였다. 나당전쟁에 대한 보다 새로운 이해와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주제어

보덕국, 나당전쟁, 고구려유민, 안승, 답설인귀서

I. 머리말

7세기 후반 동아시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648년 新羅 金春秋와 唐 太宗 사이에 맺어진 密約은 羅唐同盟으로 이어졌고, 이는 동아시아의 질서가 재편되는 계기가 되었다. 나당연합군은 660년 百濟, 668년 高句麗를 차례로 멸망시켰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어 戰爭이 일어났다.¹⁾ 그동안 670년 신라의 百濟 故地(熊津都督府) 점령, 高句麗 復興運動 勢力과의 연합에 따른 烏骨城 전투는 나당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되었다.²⁾

하지만 신라는 670년 오골성 전투에서 말갈병과는 交戰하였으나, 唐軍이 도착하자 즉각 퇴각하였다.³⁾ 이때 신라가 당군과의 직접적 교전을 피했다는 사실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인다.⁴⁾ 그러한 사실은 671년의 「薛仁貴書」와 「答薛仁貴書」에서도 확인된다. 당은 「설인귀서」에서 신라가

-
- 1) 나당전쟁 전반에 대한 연구사는 다음의 글들이 참고 된다.
이상훈, 「나당전쟁 연구동향과 전망」, 『軍史』 100,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6.
최진열, 「唐 前·後期 羅唐戰爭 서술과 인식-『唐會要』와 『通典』의 분석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56, 동북아역사재단, 2017.
김병희, 「新羅-唐 戰爭史 研究」,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 2) 나당전쟁에 대한 주요 저서는 다음과 같다.
徐仁漢, 『羅唐戰爭史』, 國防軍史研究所, 1999.
李昊榮, 『新訂 新羅三國統合과 麗·濟敗亡原因研究』, 서경문화사, 2001.
서영교, 『羅唐戰爭史研究』, 아세아문화사, 2006.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이상훈, 『나당전쟁연구』, 주류성, 2012.
 - 3) 김정민, 「669년 신라의 사죄사 파견과 나당전쟁의 발발 배경」, 『한국사연구』 178, 한국사연구회, 2017, 104쪽.
 - 4) 『資治通鑑』 201 唐紀 17 高宗條에는 670년 4월 고구려의 酋長 劍牟岑이 반란을 일으켜 高藏의 외손인 安舜(안승)을 왕으로 삼았으며, 당 고종이 군사를 내어 그들을 토벌하니 안순(안승)이 검모함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다고 전한다. 하지만 중국 측 기록에서는 670년에 신라와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이 연합하여 당과 직접 교전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당은 오골성전투가 전개된 670년에 신라와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이 연합한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安勝을 外援’으로 삼은 사실을 묻고 있으나, 이에 대해 신라는 「답설인귀서」에서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실제 중국 측 기록에는 672년에 이르러서야 신라가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지원하면서 당과 교전하였음을 전한다. 이후 당 高宗은 674년에 “文武王이 고구려의 항거하는 무리들을 받아들여 백제 땅을 점령하여 지키게 하였다(納高麗叛衆, 略百濟地守之)”는 명분으로 劉仁軌를 雞林道大摠管으로 삼고, 衛尉卿 李弼과 右領軍大將軍 李謹行으로 보좌하게 하여 신라를 공격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둘러싸고 신라와 당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었음을 보여준다.

나당동맹에서 신라는 백제 고지에, 당은 고구려 공략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⁵⁾ 신라가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 연합한 사실이 당에게 밝혀진다면, 이후 나당 사이의 갈등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당은 신라와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이 연합한 사실을 언제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는 나당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을까. 기존 연구들에서는 669년에서 671년 사이에 나당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음에도⁶⁾ 정작 당이 674년에 이르러서야 신라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글은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둘러싼 나당 사이의 갈등과 그 推移를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제 II장에서는 「설인귀서」와 「답설인귀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당시 나당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제 III장에서는 672년 신라의 對唐 謝罪使 파견 목적이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의 연합에 대한 사죄였음을 밝혀 보겠다. 나아가 그 계기가 된 石門 전투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고자 한다. 마지막 제 IV장에서는 674년에 이르러 당이 신라를 침공하겠다고 선언한 이유가 報德國에서 비롯되었음을 역설하겠다.

5) 주보돈, 『김춘추와 그의 사람들』, 지식산업사, 2018, 140~143쪽.

6) 나당전쟁의 개전 시점에 대한 연구사는(이상훈, 「나당전쟁의 개전 시점과 주체에 대한 재검토 -최근 대두되는 ‘신설’의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32,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9) 참조.

그동안 나당전쟁에 대한 연구들은 백제 고지를 둘러싼 신라와 당 사이의 갈등을 군사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 글은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둘러싼 나당관계의 변화를 외교문서, 대당 사죄사 과건과 같은 외교적 사실들과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나당전쟁에 대한 보다 새로운 이해와 관점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薛仁貴書」와 「答薛仁貴書」

나당 연합군은 660년에 백제를 멸하고, 이어 668년에는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신라와 당이 군사동맹으로 이룬 커다란 성과였다. 그러나 이에 얼마 지나지 않아 양국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었다. 670년에는 당이 신라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떠돌 만큼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었다.⁷⁾ 648년에 신라 김춘추와 당 태종은 나당밀약을 맺은 바 있었다.⁸⁾ 그에 따르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이후 백제지역은 신라가, 고구려지역은 당이 갖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은 백제와 고구려가 모두 멸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제 고지에 대한 지배권을 신라에게 移讓하지 않았다. 이에 신라는 669년 후반부터 백제 고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⁹⁾ 670년 7월에는 웅진도독부 및 백제 고지 82성을 공취하였고,¹⁰⁾ 671년에는 所夫里州를 설치하여,¹¹⁾ 백제 고지에 대한 지배를 본격화하였다.

아울러 신라는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시작하였다. 670년에는 고구려 고지인 屋骨 부근에서 신라 薛烏儒와 고구려 高延武가 연합작전을 전개하여, 말갈세력과 교전하였다.¹²⁾ 고구려 고지

7)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 文武王 11年條.

8)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11년조.

9) 노태돈, 앞의 책(2009), 239쪽.

10)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 문무왕 10년조.

11)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11년조.

에서 전개되는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하여, 육로를 이용한 당의 공격을 저지하였다.¹³⁾ 한편 670년에는 고구려 유민들을 백제 고지인 金馬渚(오늘날 전라북도 익산시)에 안치하고, 安勝을¹⁴⁾ 高句麗王으로 책봉하였다.¹⁵⁾ 이로써 신라 영내 고구려국의 재건을 의미하는 報德國이 탄생하였다.¹⁶⁾

신라는 669년 사죄사 金欽純과 金良圖를 당으로 파견하여, 백제 고지 점령에 대한 사실을 사죄하였다.¹⁷⁾ 대당 사죄사 김양도는 당 고종으로부터 “신라왕이 마음대로 백제의 토지와 남은 백성을 빼앗아 차지하였다”는 이유로 억류되어 獄死하였다.¹⁸⁾ 이와 함께 파견된 김흠순은 신라로 돌아와, 당 황제가 백제 고지를 웅진도독부에 돌려주라고 한 사실을 신라에 전하였다.¹⁹⁾

이어 671년 7월에 당은 「설인귀서」를 보내 신라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한 답장으로 신라 문무왕은 「답설인귀서」를 작성하였다.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11년조에는 두 편지가 나란히 실려 있다. 이는 당시 나당관계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사료이다.²⁰⁾ 「설인귀서」와 「

12)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 문무왕 10년조.

13) 梁炳龍, 「羅唐戰爭 進行過程에 보이는 高句麗遺民의 對唐戰爭」, 『史叢』 46, 고대사학회, 1997, 37~38쪽.

14) 안승의 출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김강훈, 「高句麗復興運動 研究」,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98~110쪽; 『고구려부흥운동 연구』, 학연문화사, 2022, 136~151쪽) 참조.

15)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 문무왕 10년조.

16) 신라는 안승을 670년에 고구려왕으로, 674년에는 다시 報德王으로 책봉하였다. 따라서 670~673년은 고구려국, 674~683년은 보덕국이 정확한 명칭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안승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이 금마저로 이주한 670년 6월부터 신라 영내에 신라의 책봉으로 재건된 고구려국을 ‘보덕국’으로 통칭하여 부르고자 한다.

17) 노태돈, 앞의 책(2009), 239쪽.

18)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 문무왕 10년조.

19)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11년조 “至七月, 入朝使金欽純等至, 將畫界地, 案圖披檢, 百濟舊地, 摠令割還”.

20)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구들이 참조된다.

拜根興, 「新羅 文武王代의 對唐外交」, 『新羅文化』 1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답설인귀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우선 「설인귀서」는 당이 신라의 지속적인 웅진도독부 공격을 문책하였다거나,²¹⁾ 석성 전투에 패배한 당이 신라를 힐책하고 그 전투의 사유를 듣기 위함이었다고 보았다.²²⁾ 「답설인귀서」는 신라의 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이해하였다.²³⁾ 다만, 이와 같은 연구들에서는 「설인귀서」와 「답설인귀서」의 내용을 대조하여, 당시 나당관계를 세밀하게 살피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설인귀서」의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신라의 백제 고지 점령 사실에 대한 당의 힐책이었다. 「설인귀서」의 내용 가운데, “무력을 이용한 변경 공격”²⁴⁾, “天時를 마음대로 해치고 이웃나라와의 우호를 어기고 속이면서 한쪽 모퉁이 땅 구석진 곳에서 집집마다 군사를 징발하고 해마다 무기를 들고 과부들이 군량의 수레를 끌고 어린 아이가 屯田을 경작하니, 지키려 해도 버틸 수 없고 나아가려 해도 겨루지 못한다”²⁵⁾ 등의 내용은 신라의 백제 고지 점령과 관련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활을 당겨 나아가면서 발 앞의 마른 우물에 빠질 줄을 모르고 사마귀가 매미를 잡으려고 나아가면서 참새가 자기를 노리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²⁶⁾라고 표현한 것은 사마귀=신라, 매미=웅진도독부(백제 고지), 참새=당을 연상하게 한다. 신라가 백제 고지를 점령한다면,

1999, 86~90쪽.

박현숙, 「「답설인귀서」, 나당전쟁기 신라 외교의 표상」, 『내일을 여는 역사』 10, 내일을 여는 역사, 2002, 235~245쪽.

김진한, 「「답설인귀서」에 보이는 신라·당 밀약 기사의 사료적 검토」, 『인문논총』 7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 253~277쪽.

주보돈, 앞의 책(2018), 121~127쪽.

21) 曹凌, 「唐新戰爭 前期 당의 한반도 전략과 전쟁의 추이」, 『中國史研究』 115, 중국사학회, 2018, 88쪽.

22) 이상훈, 앞의 책(2011), 131~132쪽.

23) 李昊榮, 앞의 책(1997), 232~234쪽.

24) “奉丞機心稍動, 窮武邊城”.

25) “侮暴天時, 侵欺鄰好, 一隅之地, 僻左之蹊, 率戶徵兵, 連年舉斧, 孀姬輓粟, 稚子屯田, 守無所支, 進不能拒”.

26) “亦由持彈而往, 暗於枯井之危, 捕蟬而前, 不知黃雀之難”.

그 다음에는 당이 신라를 노리고 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둘째, 신라가 안승을 外援으로 삼은 사실에 대한 당의 확인과 경고였다.²⁷⁾

A. 또한 고구려 안승은 나이가 아직 어리고 남아 있는 고을과 성읍에는 사람이 반으로 줄어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 지 의심을 품고서 나라를 맡을 무거운 뜻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仁貴는 樓船에 돛을 활짝 펴서 달고 깃발을 휘날리며 북쪽 해안을 순시할 때, 그가 지난 날에 활에 상한 새의 신세인 것을 불쌍히 여겨 차마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外援으로 여겼으니 이것은 어떤 잘못입니까? 황제의 은혜와 혜택은 끝이 없고 어진 풍모는 멀리 미쳐 사랑은 햇볕처럼 따뜻하고 빛남은 봄꽃과 같았습니다.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11년조 「설인귀서」)

사료 A에 보이는 바와 같이, 「설인귀서」에서 당은 신라가 안승을 외원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 아니냐고 묻고 있다. 이때 ‘外援’을 ‘외부의 지원 세력’으로 이해하여, 신라 영토 밖에 있는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 신라의 군사적 협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 견해가 있다.²⁸⁾ 하지만 그보다 앞서, 670년 6월에 고구려 유민 多式 등은 안승을 왕으로 옹립한 후 신라에게 ‘藩屏’이 되겠다고 제안하였다.²⁹⁾ 변병은 변경을 지키는 울타리를 지칭한다. 따라서 당이 신라에게 안승을 외원으로 삼은 것인지를 묻는다면, 이것이 곧 영역 밖에 있는 외부 세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사실은 671년 설인귀가 雞林道行軍總管으로 임명된 사유에서도 드러난다. 『舊唐書』에는 “고구려의 무리가 서로 다시 叛하자 조서를 내려 설인귀를 계림도행군총관으로 삼아 經略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³⁰⁾ 『新唐書』 또한 설인귀의 계림도행군총관 임명을 ‘고구려의

27) “又高麗安勝，… 恃爲外援，斯何謬也。皇帝德澤無涯，仁風遠泊，愛同日景，炤若春華。遠聞消息，悄然不信，爰命下臣，來觀由委”。

28) 김강훈, 앞의 논문(2018), 129쪽.; 앞의 책(2022), 175쪽.

29)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 문무왕 10년조.

30) 『舊唐書』 권83, 薛仁貴傳 “尋而高麗衆相率復叛，詔起仁貴爲鷄林道總管以經略之”。

반란 무리' 때문이라 전한다.³¹⁾ '계림'이라는 용어에서 공격 대상이 신라 방면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²⁾ 결국 설인귀의 계림도행군총관 지명은 신라 방면에 있는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공략하기 위함이었고,³³⁾ 그것은 신라 영내에 있는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의 존재, 보덕국을 염두에 두었음을 의미한다.

「답설인귀서」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가장 눈길을 끄는 점은 648년 당 태종과 신라 김춘추 사이에 있었던 밀약을 가장 序頭에 내세웠다는 점이다. 「답설인귀서」에는 백제 평정에 신라군의 역할이 컸으며, 웅진도독부 소속 당군 보호에 신라의 공로가 컸다는 사실이 강조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신라의 백제 고지 점령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답설인귀서」에서 신라는 “이미 중국의 한 州이므로 두 나라로 나누는 것은 합당치 않다. 바라건대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 길이 뒷날의 근심이 없게 하자”³⁴⁾라 하였다. 이는 신라가 자신들의 백제 고지 점령이 당에 대한 배반 행위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이다.

31) 『新唐書』 권111, 설인귀전 “未幾 高麗餘叛 起爲雞林道總管”.

32) 670년부터 당은 이근행과 고간을 ‘東州’ ‘燕山’과 같은 고구려 고지에 대한 행군총관으로 임명하여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진압했다. 따라서 671년 설인귀는 이와는 다른 노선으로 보아야 한다. ‘계림도’라는 행군명으로 보아 당시 당은 보덕국이 위치한 금마저 지역을 신라의 영역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33) 池內宏은 설인귀가 계림도행군총관에 임명된 것은 신라의 백제 고지 점령에 대해 수군으로 공격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보았으며, ‘고구려 반란 무리’ 때문이라고 한 것은 672년에 김모잠 일파의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이 반란한 사실이 附會된 것이라고 보았다(池內宏, 「高句麗滅亡後の反亂及び唐と新羅との關係」,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12, 東京帝國大學文學部, 1927.; 『滿鮮史研究』 上世策二冊, 吉川弘文館, 1960.; 池內宏(정병준 역), 「고구려 멸망 후 유민의 반란 및 당과 신라의 관계」, 『고구려발해연구』 48, 고구려발해학회, 2014, 278~279쪽). 한편 曹凌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였다. 설인귀가 통솔한 계림도행군총관의 작진 대상이 신라인 것은 명확하지 만, 당이 신라와의 전쟁에서 목표로 한 것은 웅진도독부를 회복하고,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진압하기 위함으로 보았다. 또한 설인귀의 계림도행군총관 임명 사유는 당이 신라의 멸망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의 반란’을 그 이유로 삼았다고 주장하였다(曹凌, 앞의 논문(2018), 86~88쪽). 그 밖의 연구자들은 설인귀가 계림도행군총관으로 임명된 사유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34) “新羅既是國家之州, 不可分爲兩國”.

그러나 「답설인귀서」에서 신라는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앞서 보았듯이, 당시 신라는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답설인귀서」에서 신라는 670년 6월의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이 漢의 관리를 죽여서 이를 위해 군사를 일으키고자 웅진도독부에 제안하였다고 당에게 거짓말을 하였다.³⁵⁾ 648년 나당밀약의 내용을 상기한다면 나당관계에서 신라의 백제 고지 점령 사실 그 자체보다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 연합한 사실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었다.³⁶⁾ 결국 「답설인귀서」에서 신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회적으로 부정하였다.

「설인귀서」에서 당은 신라가 ‘逆首’ ‘逆臣’이 된 것이 아니냐고 묻고 있다.³⁷⁾ 신라는 「답설인귀서」에서 ‘배반하지 않았다’³⁸⁾ 또는 아래 사료 B와 같이 ‘백제가 거짓으로 꾸며 신라가 배반하였다’고 전한 것이라 답하였다. 두 편지에서 쟁점이 되는 신라의 배반 행위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B. 咸亨 원년(670년) 6월에 이르러 고구려가 반역을 꾀하여 중국 관리를 모두 죽였습니다. … 백제가 비록 인질 교환을 허락하였지만 성 안에서는 군사와 말을 모아 그 성 아래 도착하여 밤이면 와서 공격하였습니다. 7월에 이르러 당나라 조정에 사신으로 갔던 金欽純 등이 땅의 경계를 그린 것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지도를 살펴보니 백제의 옛 땅을 모두 돌려주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 모두 ‘신라와 백제는 여러 대에 걸친 깊은 원수인데, 지금 백제의 상황을 보자면 따로 한 나라를 세우고 있으니, 백년 뒤에는 자손들이 반드시 그들에게 먹혀 없어지고 말 것이다. 신라는 이미 중국의 한 州이므로 두 나라로 나누는 것은 합당치 않다. 바라건대 하

35) 池內宏(정병준 역), 앞의 논문(2014), 276~277쪽.

36) 나당관계에서 문제 시 될 여지가 있음에도 신라가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 연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과의 전쟁이 임박했던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때 신라는 당의 침입을 방어하고, 웅진도독부와 백제 유민을 견제하려는 목적에서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 연합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申恩伊, 「보덕국의 탄생과 그 의미」, 『大丘史學』 132, 대구사학회, 2018, 248~251쪽).

37) “兄爲逆首，弟作忠臣”，“嗚呼，昔爲忠義，今乃逆臣”.

38) “披讀摠管來書，專以新羅已爲叛逆，既非奉心，惕然驚懼。數自功夫，恐被斯辱之譏，緘口受責，亦入不弔之數，今略陳冤枉，具錄無叛”.

나의 나라로 만들어 길이 뒷날의 근심이 없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에 이러한 사실을 모두 기록하여 사신을 보내 아뢰게 하였지만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되돌아왔으므로 다시 사신을 보냈지만 역시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 뒤에는 바람이 차고 파도가 세어 미처 아뢰 수 없었는데, 백제가 거짓을 꾸며 '신라가 배반하였다.'고 아뢰었습니다.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11년조 「답설인귀서」)

사료 B는 「답설인귀서」의 말미에 보이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670년 6월 신라와 웅진도독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배경, 7월에 김흠순이 당으로부터 귀국하여 백제의 옛 땅을 다 돌려주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어 9월에는 신라가 이런 사실을 모두 기록하여 당에 사신을 보냈지만 바다에서 표류하여 되돌아왔고, 그 뒤 백제가 거짓으로 꾸며 '신라가 배반하였다'라고 한 사실을 덧붙였다. 670년 6월과 7월의 내용은 신라가 백제 고지를 점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한 것이고, 9월의 내용은 신라가 당에게 알려야 할 일이 있어 사신을 파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신라가 사신을 보내 당 측에 알려야 했던 사건은 670년 7월과 8월 사이의 일이 되고, 이는 시기적으로 보아 앞서 보았던 670년 7월부터 시작된 신라의 백제 고지 82성 공격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670년 7월 신라의 웅진도독부를 비롯한 백제 고지 82성 공취 사건은 보덕국의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³⁹⁾ 그보다 앞서 같은 해 6월에 신라는 안승과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금마저에 안치한 후 곧이어 웅진도독부 및 백제 고지 82성을 공취하였다. 이에 대한 포상과 문책이 이루어지는 그해 8월 안승은 신라에 의해 고구려왕으로 책봉되었다.⁴⁰⁾ 그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설인귀서」는 신라가 '안승을 외원으로 삼아 백제 고지를 점령해 나가는 것'에 대해 묻고 있는 것으로 볼

39) 신라는 670년 8월 웅진도독부를 비롯한 백제 고지 82성을 공취한 사건과 관련하여, 포상과 문책을 하는 과정에서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하였다. 그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670년 7월 웅진도독부와 82성 공취사건에 보덕국의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이 신라를 지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申恩伊, 앞의 논문(2018), 251~254쪽).

40)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 문무왕 10년조.

수 있다. 이는 「설인귀서」와 「답설인귀서」의 쟁점이 신라의 ‘백제 고지 점령’, ‘안승을 외원으로 삼은 일’ 두 개의 개별적인 사실이 아닌, 670년 7월 신라가 ‘안승을 외원으로 삼아 백제 고지를 점령’한 하나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대해 신라는 당에게 배반하지 않았으며, 당의 군대가 출발하기 전에 그러한 일들의 원인에 대해 알린다고 하였다.⁴¹⁾ 여기서 그러한 일이란 것은 곧 670년 7월에 있었던 안승을 외원으로 삼아 백제 고지를 점령한 사실을 말한다. 만약 신라가 자신들의 백제 고지 점령 사실, 그 자체가 당에 대한 배반 행위로 간주 될 수 있었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백제 고지 점령의 정당성과 함께 배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동시에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반면, 신라는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부정하였다. 이는 당에 대한 신라의 배반행위가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 연합한 사실에 있었음을 나타내준다. 설인귀의 계림도행군총관 임명 사유가 고구려 부흥운동 진압을 목적으로 두고 있었다는 사실도 이를 반증한다.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설인귀서」와 「답설인귀서」의 쟁점사항

「설인귀서」와 「답설인귀서」의 서술 중심 사건		「설인귀서」의 요지	「답설인귀서」의 요지
670년 6월	신라의 안승과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 금마저 안치	신라의 배반 행위 여부 확인 및 경고	당에 대한 배반 행위 부정
670년 7월	신라의 웅진도독부 및 백제 고지 82성 공략 ※ 보덕국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의 신라 지원	당에 대한 신라의 배반 행위 ▷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 (보덕국)을 동원하여 백제 고지를 점령한 사실	
670년 8월	신라가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봉		

41) “天兵未出，先問元由，緣此來書，敢陳不叛。請摠管審自商量，具狀申奏”.

「설인귀서」에서 당은 신라의 배반 행위가 있었을 경우 대군을 파견하여 배를 이용해 신라를 침공하겠다고 하였다.⁴²⁾ 『郭行節墓誌』에는 671년 광행절이 雞林道判官 겸 知子營總管, 押運使로 파견되었으나 遼川(遼東 일대)에서 큰 과도로 배가 부서져 군사들과 함께 익사한 사실을 전한다.⁴³⁾ 따라서 이때 실제 당이 신라에 대한 해상공격을 시도하였으나, 교전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Ⅲ. 石門 전투와 對唐 謝罪使 파견

신라가 당으로 사죄사를 파견한 것은 모두 세 차례였다. 앞서 보았듯이, 신라는 669년에 1차 사죄사로 角干 김흠순과 波珍滄 김양도를 당으로 보냈다.⁴⁴⁾ 이후 672년과⁴⁵⁾ 675년에도⁴⁶⁾ 신라는 대당 사죄사를 파견하였다. 이 장에서는 672년 신라의 대당 사죄사 파견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다. 671년에 신라는 「답설인귀서」에서 당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672년 돌연 신라는 대당 사죄사를 파견하여 당에게 용서를 구하였다. 이는 신라가 671년과 672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서 당에게 사죄할 일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신라가 당에게 사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자.

C-① 왕이 지난번에 백제가 당나라에 가서 하소연하여 군사를 요청해 우리를 쳤을 때, 일의 형세가 급하게 되어 황제에게 사실을 아뢰지 못하고 군사를 내어 그들을 쳤다. 이 때문에 당나라의 조정에 죄를 얻게 되었다. 마침내 級滄 原川과 奈麻

42) “高將軍之漢騎，李謹行之蕃兵，吳·楚棹歌，幽·并惡少，四面雲合，方舟而下，依險築戍，闢地耕田，此王之膏肓也”.

43) 『郭行節墓誌』(694년 제작) ; 역주 권덕영, 『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석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658~659쪽.

44)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 문무왕 9년조.

45)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12년조.

46)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15년조.

邊山, 붙잡아 머물게 하였던 [당나라] 兵船 郎將 鉗耳大侯, 萊州 司馬 王藝, 本烈州 長史 王益, 熊津都督府 司馬 禰軍, 曾山 司馬 法聰, 그리고 군사 170명을 보냈다.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12년조)

② 臣 아무개는 죽을죄를 짓고서 삼가 아뢰입니다. 옛날에 신이 위급하여 일이 마치 거꾸로 매달린 것 같았을 때 멀리서 들어서 건지는 은혜를 입어 겨우 찢어 죽는 것을 면하였습니다. … 깊은 원한이 있는 백제는 우리나라에 가까이 다가와 황제의 군사를 끌어들이 신을 없애서 치욕을 갚고자 하였습니다. 신은 파멸의 상황에 겨를이 없어서 스스로 처지를 구하고자 하였는데, 흉악한 역적의 이름(逆名)을 쓰게 되어 마침내 용서받기 어려운 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삼가 일의 내용을 기록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잠시라도 귀 기울여 들어서서 근본 이유를 밝게 살펴주소서.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12년조)

사료 C-①은 백제(웅진도독부)의 요청에 따라 당이 공격해 오자, 황제에게 허락을 받지 못하고 당 군사를 공격하였기 때문에 사죄사를 파견하였다고 한다. 반면, 사료 C-②는 672년 신라가 당으로 보낸 表이다. 여기는 백제(웅진도독부)가 황제의 군사를 끌어들이고자 하여, 신라가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흉악한 역적이 되었다고 서술하였다. 두 사료의 내용에 차이가 난다.

이와 관련하여, 사료 C-①에서는 웅진도독부의 관료인 司馬 禰軍, 曾山 司馬 法聰, 郎將 鉗耳大侯와 같은 인물들이 신라의 대당 사죄사와 함께 당으로 보내진 사실이 주목된다. 사마 예군과 범충은 670년 7월에 있었던 신라의 웅진도독부 및 대대적인 백제 고지 공격에서,⁴⁷⁾ 겸이대 후에는 671년 당의 조운선 공격 과정에서⁴⁸⁾ 신라에 붙잡혔다. 사료에 기록된 사실 그대로만 놓고 본다면 신라가 백제 고지 점령 사실에 대해 사죄하는 것 같다.

하지만 왜 하필 신라가 672년 9월 대당 사죄사를 파견하였을까. 1년 내지 2년이 지난 일들을 이 시점에 사죄한다는 것은 신라의 底意를 의

47)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 문무왕 10년조.

48)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11년조.

심하게 만든다. 사료 C-②에서 “흉악한 역적이 되어 용서받기 힘든 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내용이 특별히 눈길을 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설인귀서」에서 당이 말하는 신라의 ‘역적 행위’는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신라가 이들을 672년 대당 사죄사로 보낸 이유는 석문전투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석문전투가 672년 신라의 대당 사죄사 파견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본 연구들이 있다.⁴⁹⁾ 대개 석문전투에서 신라가 大敗함에 따라 사죄사를 파견하게 되었고, 나당전쟁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았다. 이때 신라의 피해가 컸음은 분명하다.⁵⁰⁾

다만 석문전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 신라가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 연합하여 고구려 고지에서 당과 교전하였다는 점이다. 671년에 신라는 「답설인귀서」에서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의 밀착을 부정한 바 있었다. 이때 신라는 고구려 고지에서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 연합하여 당에게 대적하였다.

D-① 8월에 [당나라 군사가] 韓始城과 馬邑城을 공격하여 이겼다. 白水城에서 5백 보 쯤 되는 곳까지 군사를 전진시켜 軍營을 설치하였다. 우리 군사와 고구려 군사가 [당나라 군사와] 맞서 싸워 수천 명의 목을 베었다. 高侃 등이 후퇴하자 추격하여 石門에 이르러 싸웠는데, 우리 군사가 패배하여 大阿漚 曉川, 沙漚 義文, 山世, 阿漚 能申, 豆善, 一吉漚 安那舍, 良臣등이 죽임을 당하였다.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12년조)

② 12월에 高侃이 고려의 남은 무리들과 白水山에서 싸워서 이들을 격파하였다. 신라에서 군사를 파견하여 고려를 구원하니 고간이 이를 쳐서 깨뜨렸다. (『자치통감』 권202, 당기 고종 威亨3년조)

석문지역은 黃海道 瑞興郡으로 비정되는 곳이다. 그리고 韓始城과 馬

49) 이상훈, 앞의 책(2012), 112~113쪽.

賈凌, 앞의 논문(2018), 95쪽.

50) 서영교, 앞의 책(2006), 149쪽.

邑城, 白水城, 白水山의 위치는 명확하지 않으나, 대체로 황해도 일대로 추정된다.⁵¹⁾ 사료 D-①에는 한시성, 마음성, 백수성, 석문에서 있었던 네 번의 전투가 모두 8월의 일로 기록되어 있다. 반면, 사료 D-②는 12월의 백수산 전투에 관한 기록만 확인된다. 사료 D-①은 672년 8월의 석문전투를 중심으로 관련 사건들을 서술한 것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는 석문전투가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러하였을 것이다.⁵²⁾ 한시성, 마음성, 백수성에서 있었던 전투는 모두 8월의 석문전투보다 앞서 있었던 일들로 보인다. 672년 7월에 고간과 이근행이 平壤에 軍營을 설치하였다고 하므로,⁵³⁾ 사료 D-①의 전투들은 672년 7월부터 8월까지의 기록이 정리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측 사료 D-②는 12월의 백수산 전투에서 고간이 최종적으로 승리한 사실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그보다 앞서 있었던, 신라가 백수성 인근에서 당의 군사 수천 명을 목 벤 사실과 고간이 추격당한 사실은 기록하지 않은 채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백수산 전투의 승리만을 기록하였다고 하겠다. 사료 D-①과 ②는 어느 한쪽이 誤記라기 보다가 황해도 일대에서 있었던 전투들 가운데 신라와 당이 중시하는 사실이 달랐기 때문에 기록한 내용도 차이가 난다.

670년에 당은 고간을 東州道行軍總管으로, 이근행을 燕山道行軍總管으로 삼아 고구려 고지의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토벌케 하였다. 중국측 사료에서는 그들의 파견 이유가 검모잠이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⁵⁴⁾ 당이 고간과 이근행을 파견한 것은 고구려 부흥

51) 鄭求福 외, 『譯註 三國史記』 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232~233쪽.
 52) 『삼국사기』 권43, 열전 김유신(下)에도 석문전투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였다.
 53)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12년조 “秋七月, 唐將高保率兵一萬, 李謹行率兵三萬, 一時至平壤, 作八營留屯”.
 54) 『신당서』 권220,동이열전 고려조 “大長鉞牟岑率衆反, 立藏外孫安舜爲王. 詔高備東州道, 李謹行燕山道, 並爲行軍總管討之, 遣司平太常伯楊昉綏納亡餘”. 『資治通鑑』 권201, 咸亨元年조 “高麗酋長劍牟岑反, 立高藏外孫安舜爲主. 以左監門大將軍高侃爲東州道行軍總管, 發兵討之. 安舜殺劍牟岑, 奔新羅”. 『唐會要』 卷73 至咸亨元年條 “高麗餘衆有酋長劍牟岑者, 率衆叛, 立高藏外孫安舜爲主, 詔左衛大將軍高侃討平之”.

운동을 진압하기 위함이었으며, 당초 그들의 공격 대상은 신라가 아니었다. 사료 D-②에서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 교전할 때, 신라가 이를 구원하러 왔다고 서술한 점에서도 그러하다.

사료 D-②는 중국 측 사료에서 확인되는 당과 신라의 첫 번째 교전이다. 신라는 고구려 고지의 부흥운동 세력을 지원함으로써, 당이 육로를 이용해 군사 행동을 취하는 것을 제어하고자 하였다.⁵⁵⁾ 하지만 석문 전투에서 신라는 단순히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고간의 군사를 추격하여 역습까지 하는 적극성과 대담함을 보였다.⁵⁶⁾ 이렇듯 신라가 황해도 일대에서 당과의 전투를 치르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이유는 그 지역에 신라군도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⁵⁷⁾

신라와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이 연합하여 전개한 석문전투는 실패로 끝났다. 그 과정에서 신라는 고구려 고지에서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 연합하여 당과 직접 교전하였다. 이는 「설인귀서」에서 당이 불만을 제기 하였던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의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설인귀서」의 내용에 비춰 본다면, 신라는 당의 대대적인 공격을 충분히 예상 하였을 것이다. 신라가 석문전투 직후 사죄사를 파견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고 하겠다. 당이 문제 삼기 전에, 먼저 사죄사를 파견하여 외교적으로 사태를 수습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하겠다.

이때 신라가 대당 사죄사 파견과 함께 사마예군, 범총과 같은 웅진도독부 소속 관료들을 당으로 환송한 사실이 주목된다. 이들은 신라의 웅진도독부 및 백제 고지 82성 공취사건에서 신라에 붙잡혔다. 이 사건은 보덕국의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의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만큼, 신라의 672년 대당 사죄사 파견은 「답설인귀서」에서 부정한 바 있었던 보

55) 임기환, 『고구려정치사연구』, 한나래, 2004, 334쪽.

56) 양병룡은 672년에 황해도 일대에서 일어난 당과의 전투의 당사자는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이때 신라는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지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 중대사의 차원에서 당과 항쟁을 벌였으며 병력 규모도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보다 훨씬 많다고 보았다(梁炳龍, 앞의 논문(1997), 37~38쪽).

57) 이상훈, 앞의 책(2012), 36~37쪽.

덕국과의 연합에 대한 사죄의 성격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료 C-②에서 신라는 “백제가 황제의 군사를 끌어들여 신을 없애서 치욕을 갚고자 하여, 스스로를 구하고자 역적이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때 신라는 ‘백제(웅진도독부)가 자신들을 공격하려 하였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 밀착하게 되는 역적이 되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당의 대대적인 공격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신라는 석문전투 직후 가장 먼저 晝長城을 축조하였다.⁵⁸⁾ 주장성의 위치는 경기도 광주의 南漢山城으로 비정된다.⁵⁹⁾ 이후 그 以南 지역에 대대적인 築城을 시행함으로써, 방어를 강화해 나갔다.⁶⁰⁾ 673년에는 戍兵을 설치하고,⁶¹⁾ 672년에는 新三千幢 가운데 牛首州三千幢, 奈吐郡三千幢을 설치하였다.⁶²⁾ 이러한 사실들은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의 관계가 밝혀짐에 따른 당의 대대적인 공격에 대한 준비로 여겨진다. 당은 674년 신라를 침공하기로 하였다. 이때 당이 신라 침공을 선언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58)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12년조.

59) 鄭求福 외, 앞의 책(1997), 233쪽.

60) 석문전투의 패배로 인해 신라가 나당전쟁에 대한 전략을 방어로 전환하였다고 본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신라의 대체적인 방어선은 제 1방어선이 당군과의 경계를 이루던 임진강이었고, 그 후방에 주장성, 주양성, 주잠성이 축조되면서 제 2방어선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한다. 또 소백산맥 일대를 중심으로 국원성, 사열산성, 만홍산성이 제 3방어선, 경상북도 내륙에 소문성, 이산성, 골쟁현성이 축조되면서 제 4방어선을 형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서형산성과 북형산성이 축조되면서 제 5방어선인 왕경방어 체제가 완비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신라의 5단계에 걸친 방어선은 당군의 남하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이상훈, 「나당전쟁기 신라의 대규모 축성과 그 의미」, 『한국고대사탐구』 23,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6, 83~88쪽).

61)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13년조.

62) 『삼국사기』 권40, 잡지 신삼천당조.

IV. 674년 唐의 新羅 침공 선언과 報德國

674년에 당 고종은 문무왕의 관작을 삭탈하고, 金仁問을 신라의 왕으로 삼아 귀국하게 하였다. 또한 劉仁軌를 雞林道大摠管으로 삼고, 이필과 이근행으로 하여금 보좌하게 하여 신라를 공격하였다. 이는 사실상 당이 신라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때 당이 신라 공격을 선언한 이유는 ‘왕이 고구려의 배반한 무리를 받아들이고 또한 백제의 옛 땅에 살면서 사람을 시켜 지키게 하였다’는 사실에 있었다.⁶³⁾

674년에 당이 신라를 침공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제시되었다. 우선 신라가 ‘백제 고지를 점령한 것’ 그리고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받아들인 것’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이 당의 신라 침공 명분이 되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당의 신라 침공 명분을 신라가 ‘백제 고지를 점령하고 검모잡의 반란에 대한 지원’⁶⁴⁾으로 보거나, ‘백제 고지를 점령하고 안승과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받아들인 것’⁶⁵⁾ 등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674년에 당의 신라 침공 명분을 신라가 ‘안승을 받아들여 백제 땅에 안치한 일’⁶⁶⁾ 또는 ‘고구려유민을 받아들여 백제 땅을 지키게 한 사실’⁶⁷⁾로 해석할 수도 있다. 674년에 당의 신라 침공 명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나당전쟁에 대한 이해는 달라진다.

63)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14년조 “王納高句麗叛衆, 又據百濟故地, 使人守之”.

64) 池內宏(정병준 역), 앞의 논문(2014), 255~281쪽.

65) 閔德植, 「羅·唐戰爭에 관한 考察 -買肖城(매소성) 전투를 중심으로-」, 『史學研究』 40, 한국사학회, 1989, 146~156쪽.

黃約瑟, 「武則天與朝鮮半島政局」, 劉健明 編, 『黃約瑟隋唐史論集』, 中華書局, 1997. ; 黃約瑟(정병준·曹凌 역), 「武則天和 한반도 정세」, 『新羅史學報』 35, 신라사학회, 2015, 227쪽.

徐仁漢, 앞의 책(2006), 118쪽.

진경효, 「7세기 후반 나당관계와 김유신」, 『大丘史學』 115, 대구사학회, 2014, 30쪽.

66) 이미경, 「新羅의 報德國 지배정책」, 『大丘史學』 120, 대구사학회, 2015, 110~112쪽 및 115~116쪽.

67) 李成市, 「6-8世紀の東アヅア世界」, 『日本歴史』 2, 岩波書店, 2014, 238쪽.

申恩伊, 앞의 논문(2018), 260~261쪽.

- E-① 納高麗叛衆，略百濟地守之。(『신당서』 권220, 동이열전 신라 함형 5년조)
② 既納高麗叛亡之衆，又封百濟故地，漸使人守之。(『册府元龜』 권986, 外臣部 唐高宗 咸亨 5년조)
③ 既納高句麗叛亡之衆，又封百濟故地，遣兵守之。(『唐會要』 권95, 신라 上元 원년조)

사료 E-②와 ③은 신라가 고구려 반란의 무리들을 백제 고지에 ‘封’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封’하였다는 사실이 각별히 유의된다. 封의 의미에는 ‘토지를 주어 제후로 삼는다’는 뜻이 있다. 신라 문무왕이 백제 고지를 준 대상은 앞에 있는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으로 볼 수 있다. ‘又’라는 글자로 인해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 ‘백제 고지 점령’ 각각의 두 가지 사실로 이해할 여지도 있으나, 이는 신라가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받아들였고 ‘또한’ 백제 토지를 함께 봉하여 준 사실로 해석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그 밖의 관련 사료에서도 약간의 표현상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⁶⁸⁾ ‘신라가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받아들이고 백제 고지를 점령하여 지키게 하였다’는 기본 구조는 변함이 없다. 이는 신라에 의해 백제 고지인 금마저에 안치된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 보덕국을 연상하게 한다.

670년 보덕국과 신라 사이에 오고 간 표와 책봉문에 따르면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은 신라에게 “본국의 귀족 안승을 맞아 받들어 임금으로 삼았습니다. 바라건대 邊防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 영원히 충성을 다하고자 합니다”라 하였다. 이에 대해 신라는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금마저에 안치하였다.⁶⁹⁾ 이어 8월에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하면서, “유민들을 어루만져 모으고 옛 왕업을 잇고 일으켜 영원히 이웃 나라로서

68) 『자치통감』 권202, 唐紀 상원원년조 “時新羅王法敏既納高麗叛衆，又據百濟故地，使人守之”.

『玉海』 권191, 兵捷 露布조 “時新羅王法敏既納高麗叛衆，又據百濟故地，使人守之”.

69)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 문무왕 10년조 “興滅國，繼絕世，天下之公義也，推大國是望。我國先王，以失道見滅，今臣等得國貴族安勝，奉以爲君。願在藩屏，永世盡忠。王處之國西金馬渚”.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⁷⁰⁾ 안승과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이 신라를 지키는 변병이 되겠다고 요청함에 따라, 신라는 그들을 백제 고지에 안치하고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해 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위의 사료 E-①, ②, ③의 내용과 부합하므로, 674년 당의 신라 침공 명분은 보덕국에 대한 것이었다.

당이 신라 침공 명분으로 보덕국을 지목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나당밀약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648년의 나당밀약을 맺을 당시 당은 고구려 공략에, 신라는 백제 점령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양자의 이해관계가 성립함에 따라 나당동맹은 실현될 수 있었다.⁷¹⁾ 신라가 보덕국과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지원한 것은 648년 나당밀약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둘째, 신라가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한 사실에 대한 반발의 성격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가 고구려의 왕족을 왕으로 책봉한 것은 당의 이민족 지배정책에 대한 신라 나름의 대응 방법이었다. 당이 고구려와 백제의 왕족을 高麗朝鮮郡王과 百濟帶方郡王으로 봉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라가 당과 대등한 관계로 신라의 국제적 위치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⁷²⁾ 당과 마찬가지로 신라 또한 고구려라는 蕃國을 두고 있음을 나타내준다.⁷³⁾ 신라는 당의 年號와 曆法을 사용하였고, 빈번하게 사절을 보내 조공하였다. 신라의 왕자들은 당에서 숙위하였으며, 신라왕은 여러 上表文을 보냈었다. 당시 당은 신라가 자신들의 친하질서에 편입되었다고 여겼을 듯하다.⁷⁴⁾ 그러한 당의 인식을

70)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 문무왕 10년조 “遣沙湿須彌山, 封安勝爲高句麗王. 其冊曰, 維咸亨元年歲次庚午秋八月一日辛丑, 新羅王致命高句麗嗣子安勝. … 公避危難於山野, 投單身於鄰國. 流離辛苦, 迹同晉文, 更興亡國, 事等衛侯. 夫百姓不可以無主, 皇天必有以眷命. 先王正嗣, 唯公而已, 主於祭祀, 非公而誰. 謹遣使一古浪金須彌山等, 就披策, 命公爲高句麗王, 公宜撫集遺民, 紹興舊緒, 永爲鄰國, 事同昆弟. 敬哉敬哉. 兼送粳米二千石·甲具馬一匹·綾五匹·絹細布各十四·綿十五稱, 王其領之”.

71) 주보돈, 앞의 책(2018), 140~141쪽.

72) 金壽泰, 「文武王」, 『한국사시민강좌』 13, 일조각, 1993, 13~14쪽.

73) 김수태, 「신라의 친하관과 삼국통일론」, 『신라사학보』 32, 신라사학회, 2014, 53쪽.

74) 拜根興, 「“羅唐戰爭” 研究 中の 몇 가지 問題」, 『中國學報』 46, 한국중국학회, 2002,

신라는 적절히 활용하였는데, 「답설인귀서」에서 신라가 당의 한 州와 마찬가지로 한 사실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신라가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한 것은 당의 천하 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당이 신라를 공격하게 된 하나의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셋째, 고구려 재건에 대한 현실적인 염려가 작용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당은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고구려를 멸망시킬 수 있었다.⁷⁵⁾ 648년에 당 태종이 나당밀약을 맺고 나당동맹을 실현한 이유도 고구려를 공략하기 위함이었다.⁷⁶⁾ 검모잠이 안승을 왕으로 삼은 것을 문제 삼아 고간과 이근행을 파견하여 이를 진압하기 위해 나선 것도 고구려 재건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다.

보덕국의 존재는 사실상 고구려의 再建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신라는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하였다. 나아가 보덕국은 고구려의 제사,⁷⁷⁾ 관료체제를 계승하였다.⁷⁸⁾ 그 곳의 對日 외교 사신은 고구려 사신으로 인식되었다. 이를 뒷받침할 인적자원도 보덕국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덕국에서 일본으로 파견된 사신들의 부명은 上部, 下部, 前部, 後部, 西部, 南部 등 6개로 나뉘는데, 그만큼 보덕국에 방대한 인적자원이 있었음을 유추하게 한다.⁷⁹⁾ 669년에 안승은 4000여호를 이끌고 신라에 투항해 왔으므로,⁸⁰⁾ 이들 상당수도 보덕국의 주민이 되었을 듯하다.⁸¹⁾

258쪽.

75)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과정은 다음의 글 참조(노태돈, 앞의 책(2009)).

76) 648년에 나당밀약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당의 전략이 수정됨에 따른 것이었다. 당은 645년, 647년, 648년 등 3차례에 걸쳐 고구려 원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바로 그 무렵 김춘추가 입당하였기 때문에, 신라의 요청이 쉽게 받아들여져 밀약이 성사될 수 있었다고 한다(주보돈, 앞의 책(2018), 114쪽).

77)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 문무왕 10년조.

78) 임기환, 앞의 책(2004), 345~347쪽.

79) 서영교, 「신문왕대 보덕성민의 반란과 헬리혜성」, 『인문학연구』 78, 충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9, 236~237쪽.

80) 『삼국사기』 권22, 高句麗本紀 寶藏王(下) 총장 2년조.

81) 보덕성민의 반란은 보덕국의 인적 규모나 武裝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사실 당은 오래전부터 신라마저 지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663년에 신라를 鷄林州大都督府로 삼고, 문무왕을 鷄林州大都督으로 임명하였는데,⁸²⁾ 이는 사실상 삼국을 각각 일개 州로 편성하여 직접지배하고자 하였음을 의미한다.⁸³⁾ 당은 漢城州 總管 藪世와 漢城 都督 朴都儒와 같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신라 정치세력 간의 갈등과 대립을 이용하여 신라 지배를 실현하고자 하였다.⁸⁴⁾ 670년에 義湘은 당이 신라를 치려 한다는 소식을 알려왔다.⁸⁵⁾ 이러한 사실들은 당이 신라에 대한 공격 의지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신라가 백제 고지 점령을 하지 않았더라도,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 연합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은 신라를 공격할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당은 토번으로 인해, 쉽사리 신라를 공격할 수 없었다. 670년 4월에 당과 토번 사이에 대비천 전투가 일어났는데, 여기서 당은 참패를 당했다.⁸⁶⁾ 674년에 당은 신라에 대한 공격을 선언하였으나 675년까지 토번으로 인해, 실행하지 못하였다.⁸⁷⁾ 678년까지 그러한 논의가 이어졌

다. 신문왕 4년(684) 11월에 안승의 族子인 장군 大文이 금마저에서 발각되어 伏誅되는 사건이 있었다. 또한 이를 본 그 餘黨이 신라의 관리를 살해하고 읍을 차지하며 반란을 일으켰다. 이 전투로 신라의 관리가 살해되고, 黃衿誓幢 步騎監 金令胤과 貴幢 弟監 逼實이 전사할 만큼 그 위세가 자못 대단하였다.(정선여, 「신라로 유입된 고구려유민의 동향 -報德國 주민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56, 호서사학회, 2010, 97~101쪽). 그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보덕국의 인적 규모나 무장 정도가 상당하였다고 생각되며, 보덕국에서 일본으로 파견된 사신들이 칭한 부의 명칭 또한 허울이 아닌 실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82) 당이 신라를 계림주라는 이름의 기미주로 편제한 것은 나당동맹을 파기하고 백제영역은 물론 신라마저 지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후 당이 신라에 제수한 책봉호에는 羈糜州 官號가 포함되었다(김종복, 「南北國의 冊封號에 대한 기초적 검토」, 『역사와 현실』 61, 한국역사연구회, 2006, 65~66쪽).

83) 李昊榮, 앞의 책(2001), 226쪽.

84) 井上秀雄, 『古代朝鮮』, 日本放送出版協會, 1972.; 金東旭. 金森襄作 共譯, 『古代韓國史』, 日新社, 1981, 231~232쪽.

85) 『三國遺事』 권4, 義解 義湘傳敎.

86) 정병준, 「吐番의 土谷渾 併合과 代非川 戰鬥 -唐朝의 韓半島 政策과 관련하여-」, 『歷史學報』 218, 역사학회, 2013, 329~333쪽.

87) 서영교, 앞의 책(2006), 190~194쪽.

음에도, 당은 토번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신라를 공격할 수 없었다.⁸⁸⁾

고구려 고지에서 전개되던 부흥운동도 당의 신라 공격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 고구려 멸망 이후 遼河-鴨綠江, 西北韓 일대, 松花江 유역의 扶餘 지역, 두만강 유역의 柵城 지역에⁸⁹⁾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부흥운동이 전개되었다.⁹⁰⁾ 이로 인해 당은 그 곳의 안정화에 주력하기 위해, 신라에 대한 공격을 도모하지 않았다.

674년에 신라를 상대로 대대적인 공격을 선언한 것은 당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되었음이 분명하다.⁹¹⁾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674년에 당은 신라 공격을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75년까지 토번으로 인해 실질적인 신라 침공을 할 수 없었다. 당은 676년 2월에 安東都護府의 治所를 新城으로 옮겼다. 그리고 보장왕을 遼東州都督으로 임명하고, 669년 당 내지로 강제 이주시켰던 고구려 유민과 함께 요동으로 귀환시켰는데, 이는 요동지역에 대한 지배체제를 재정비한 후 신라 원정을 도모하고자 함이었다.⁹²⁾ 이와 같은 사실들은 674년에 당이 신라 침공을 선언할 때, 토번이나 고구려 고지에 대한 지배가 안정적이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일각에서는 당이 토번에 대해 미봉적 태도를 취한 채 신라로 눈을 돌린 것이라 보기도 한다.⁹³⁾

88) 서영교, 앞의 책(2006), 336쪽.

89) 부여성 및 책성 권역의 부흥운동에 관해서는 (김강훈, 앞의 논문(2018), 141~196쪽. ; 앞의 책(2022), 191~212쪽) 참조.

90) 여호규, 「遺民墓誌銘을 통해본 唐의 東方政策과 高句麗 遺民의 동향」, 『東洋學』 69,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7, 82~83쪽.

91) 정병준은 670년에 안승이 검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지만, 이 해에 당의 군대가 한반도를 공격하지 않은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때 당은 토번과 동시에 한반도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군사적 부담으로 인해 숨 고르기를 하였다고 보았다(정병준, 앞의 논문(2013), 331쪽).

92) 김종복, 「高句麗 멸망 이후 唐의 지배 정책-安東都護府를 중심으로-」, 『史林』 14, 수선사학회, 2003, 29~32쪽.

93) 당은 태종대 이후 이상할 만큼 한반도에 집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지만, 한반도를 방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토번에게 토욕혼 병합을 허용하여 서역을 점령당하였다. 이후에도 당은 지속적으로 토번의 침공에 시달려야 했으며, 그 여파로 동돌궐이 부활하고 발해가 건국되면서 당의 국세가 크게 위축되었다. 당의 한반도(특히

당이 674년에 신라 침공을 선언한 것은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멸망시킨 고구려가 부흥될지도 모른다는 경계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675년에 신라는 세 번째 대당 사죄사를 파견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무왕의 관작은 회복되었다.⁹⁴⁾ 그러나 당의 신라에 대한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675년 9월 29일 매초성 전투에서 신라는 승리를 거두었으며,⁹⁵⁾ 675년 9월에는 설인귀가 당에 있던 신라 숙위 학생 金風訓을 길잡이로 내세워 泉城을 침공하였는데, 신라군이 이를 받아쳐 대과하니 설인귀가 달아났다.⁹⁶⁾ 신라는 676년 11월 사찬 施得이 해군을 끌고 설인귀의 당 수군과 금강 하구인 기벌포 전투를 벌여 처음에는 패하였으나 다시 진격하여 23회 싸워 이겨 대승을 거두었다.⁹⁷⁾ 이후 신라와 당 사이의 交戰 기사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신라의 백제 고지 점령이 나당전쟁의 주요 요인이었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한 연구의 시작은 일본인 학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⁹⁸⁾ 津田左右吉은 “신라가 백제 고지와 고구려 고지가 멀어 당에게 복종하지 않음을 알고, 그 허를 찔러 신라가 併呑하였다”⁹⁹⁾ 그리고 “671년에 설인귀가 신라의 백제 침략을 비난한 것 같다”¹⁰⁰⁾라고 서술하였다. 또한 池内宏은 “신라가 고구려 고지에서 전개된 부흥운동을 지원하였고, 그 사이에 백제 고지를 점령하여 당이 신라를 공격하게 되었다”라고 보았다. 이후 줄곧 당이 신라를 침략하게 된 이유는 신라의 백제 고지 점령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식되었다.¹⁰¹⁾ 이렇듯 그동안 연구들에서는 나당

고구려)에 대한 집착이 결국 정책 실패로 이어져 동아시아의 판도까지 변화시키게 되었다(정병준, 앞의 논문(2013), 334쪽).

94)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15년조.

95) 노태돈, 앞의 책(2004), 266쪽.

96)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15년조.

97)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16년조.

98) 池内宏(정병준 역), 앞의 논문(2014), 281쪽.

99) 津田左右吉, 『羅唐交戰地理考』,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1,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 293쪽.

100) 津田左右吉, 앞의 논문(1913), 299쪽.

101) 閔德植, 앞의 논문(1989), 162쪽.; 李昊榮, 앞의 책(2001), 211쪽.; 徐仁漢, 앞의

전쟁의 주요 요인으로 신라의 백제 고지 점령 사실을 강조하였으나, 674년 당의 신라 침공 명분, 신라와 당 사이의 외교적 쟁점이 되었던 보덕국과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당전쟁에서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 보덕국은 신라와 당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주된 요인이었다.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둘러싼 나당 사이의 갈등과 그 추이를 살폈다. 670년 신라는 백제 고지 점령을 본격화하는 한편,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신라의 행보에 당이 불만을 드러낸 것은 671년의 일이었다. 「설인귀서」와 「답설인귀서」에서 쟁점이 되는 사건은 670년 7월에 있었던 신라의 웅진도독부 및 백제 고지 82성 공취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이때 신라는 보덕국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의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당은 「설인귀서」에서 신라가 안승을 외원으로 삼아 백제 고지를 점령해 나가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신라는 「답설인귀서」에서 백제 고지 점령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주장하였지만, ‘안승을 외원으로 삼은 사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648년 나당밀약의 내용을 상기한다면 나당관계에서 신라의 백제 고지 점령 사실 그 자체보다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 연합한 사실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실제 당시 설인귀가 계림도행군총관으로 임명된 것은 ‘고구려의 무리가 서로 다시 叛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설인귀서」와 「답설인귀서」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신라의 당에 대한 배반행위’는 백제 고지 점령 사실 그 자체보다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의 밀착에 대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책(1999), 112~118쪽.; 노태돈, 앞의 책(2009), 239쪽.; 이상훈, 앞의 책, 117쪽.; 曹凌, 앞의 논문, 133쪽.; 김정민, 앞의 논문(2017), 124~125쪽.

신라는 672년 9월에 대당 사죄사를 파견하였다. 이때 신라는 당에게 “백제가 당의 군대를 끌어들이어 자신들을 공격하고자 하여,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흉악한 역적’이 되었다”라고 表를 전하였다. 「설인귀서」와 「답설인귀서」의 내용으로 미뤄보면 ‘흉악한 역적’은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 연합한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72년 신라의 대당 사죄사 파견은 같은 해 8월의 석문 전투와 관련이 있다. 이 전투에서 신라는 크게 패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 연합한 사실까지 당에게 밝혀지게 되었다. 이때 신라는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 연합하여 고구려 고지에서 당과 교전한 사실뿐만 아니라, 「답설인귀서」에서 부정하였던 보덕국과의 관계에 대한 사죄였다.

그럼에도 674년에 당은 ‘신라가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받아들여 백제 땅을 지키게 하였다’는 사실, 즉 보덕국을 명분으로 신라에 대한 공격을 선언하였다. 당이 보덕국을 명분으로 신라 침공을 선언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우선 신라가 648년 나당밀약을 어기고,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 연합한 사실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신라가 중국의 천하질서를 부정하고,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한 사실에 대한 불만도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마지막으로 고구려 재건에 대한 당의 현실적인 염려가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보덕국은 고구려 체제와 제사를 계승하였고, 신라에 의해 안승이 고구려왕으로 책봉되었으므로 사실상 고구려가 재건된 것과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당은 오랜 시간에 걸쳐 어렵게 공략한 고구려가 부흥될 것에 대해 경계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당은 오래전부터 신라마저 지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토번과 고구려 부흥운동으로 인해 신라를 침공할 수 없었다. 674년에도 상황은 여전하였다. 그럼에도 당은 서둘러 신라 공격을 선언하였다. 이에 675년 신라는 세 번째 대당 사죄사를 파견하였고 문무왕의 판작은 회복되었다. 그러나 당의 신라에 대한 공격은 멈추지 않았고, 676년 기벌포 전투까지 신라와 당 사이에는 여러 번 교전이 이어졌다.

그동안 연구들에서는 나당전쟁의 주요 요인으로 신라의 백제 고지 점

령 사실을 강조하였으나, 신라와 당 사이의 외교적 쟁점이 되었던 보덕국과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당전쟁에서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 보덕국은 신라와 당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주된 요인이었다.

※ 이 논문은 2023년 01월 26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02월 27일부터 03월 1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03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三國史記』 『舊唐書』 『新唐書』 『資治通鑑』 『唐會要』 『玉海』 『郭行節墓誌』

- 역주 권덕영, 『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석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 김강훈, 『고구려부흥운동 연구』, 학연문화사, 2022.
- 金東旭·金森襄作 共譯, 『古代韓國史』, 日新社, 1981.
-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 서영교, 『羅唐戰爭史研究』, 아세아문화사, 2006.
- 徐仁漢, 『羅唐戰爭史』, 國防軍史研究所, 1999.
- 이상훈, 『나당전쟁연구』, 주류성, 2012.
- 李昊榮, 『新訂 新羅三國統合과 麗·濟敗亡原因研究』, 서경문화사, 2001.
- 임기환, 『고구려정치사연구』, 한나래, 2004.
- 鄭求福 외, 『譯註 三國史記』 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 주보돈, 『김춘추와 그의 사람들』, 지식산업사, 2018.
- 津田左右吉, 「羅唐交戰地理考」,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1,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
- 김강훈, 「高句麗復興運動 研究」,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김병희, 「新羅-唐 戰爭史 研究」,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 金壽泰, 「文武王」, 『한국사시민강좌』 13, 일조각, 1993.
- 김수태, 「신라의 천하관과 삼국통일론」, 『신라사학보』 32, 신라사학회, 2014.
- 김정민, 「669년 신라의 사죄사 파견과 나당전쟁의 발발 배경」, 『한국사연구』 178, 한국사연구회, 2017.
- 김종복, 「高句麗 멸망 이후 唐의 지배 정책-安東都護府를 중심으로-」, 『史林』 14, 수선사학회, 2003.
- 김종복, 「南北國의 冊封號에 대한 기초적 검토」, 『역사와 현실』 61, 한국역사연구회, 2006.
- 김진한, 「『답설인귀서』에 보이는 신라·당 밀약 기사의 사료적 검토」, 『인문논총』 7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
- 閔德植, 「羅·唐戰爭에 관한 考察 -買肖城(매소성) 전투를 중심으로-」, 『史學研究』

- 40, 한국사학회, 1989.
- 박현숙, 「답설인귀서」, 나당전쟁기 신라 외교의 표상, 『내일을 여는 역사』 10, 내일을 여는 역사, 2002.
- 拜根興, 「新羅 文武王代の 對唐外交」, 『新羅文化』 1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99.
- 拜根興, 「“羅唐戰爭” 研究 中の 몇 가지 問題」, 『中國學報』 46, 한국중국학회, 2002.
- 申恩伊, 「보덕국의 탄생과 그 의미」, 『大丘史學』 132, 대구사학회, 2018.
- 서영교, 「신문왕대 보덕성민의 반란과 헬리헤성」, 『인문학연구』 78,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 梁炳龍, 「羅唐戰爭 進行過程에 보이는 高句麗遺民의 對唐戰爭」, 『史叢』 46, 고대사학회, 1997.
- 이미경, 「新羅의 報德國 지배정책」, 『大丘史學』 120, 대구사학회, 2015.
- 이상훈, 「나당전쟁기 신라의 대규모 축성과 그 의미」, 『한국고대사탐구』 23,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6.
- 이상훈, 「나당전쟁 연구동향과 전망」, 『軍史』 100,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6.
- 이상훈, 「나당전쟁의 개전 시점과 주체에 대한 재검토 -최근 대두되는 ‘신설’의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32,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9.
- 李成市, 「6-8世紀の東アツア世界」, 『日本歴史』 2, 岩波書店, 2014.
- 여호규, 「遺民墓誌銘을 통해본 唐의 東方政策과 高句麗 遺民의 동향」, 『東洋學』 69,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7.
- 曹凌, 「唐新戰爭 前期 당의 한반도 전략과 전쟁의 추이」, 『中國史研究』 115, 중국사학회, 2018.
- 전경효, 「7세기 후반 나당관계와 김유신」, 『大丘史學』 115, 대구사학회, 2014.
- 정선여, 「신라로 유입된 고구려유민의 동향 -報德國 주민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56, 호서사학회, 2010.
- 정병준, 「吐蕃의 土谷渾 併呑과 代非川 戰鬪 -唐朝의 韓半島 政策과 관련하여-」, 『歷史學報』 218, 역사학회, 2013.
- 池内宏(정병준 역), 「고구려 멸망 후 유민의 반란 및 당과 신라의 관계」, 『고구려발해연구』 48, 고구려발해학회, 2014.
- 최진열, 「唐 前·後期 羅唐戰爭 서술과 인식-『唐會要와 『通典』의 분석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56, 동북아역사재단, 2017.

黃約瑟(정병준·曹凌 역), 「武則天과 한반도 정세」, 『新羅史學報』 35, 신라사학회, 2015.

The Development of the Nadang War and Bodeokguk

Shin, Eun-yi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conflicts between Silla and Tang and their progress around the forces of the Goguryeo Restoration Movement during the Silla-Tang War. In 670, Silla occupied the highlands of Baekje in full scale and started to support the forces of the Goguryeo Restoration Movement. Tang expressed its complaints about these moves of Silla that occupied the highlands of Baekje with Ahn Seung as Oiwon by sending “Seoringuiseo”. In its reply “Dapseoringuiseo”, Silla insisted on the legitimacy of its occupation of Baekje's highlands and stated that it engaged in no acts to betray Tang. The comparison of “Seoringuiseo” and “Dapseoringuiseo” in terms of content shows that “Silla's acts to betray Tang”, which stirred a diplomatic controversy in Silla-Tang relations, concerned the alliance between Silla and the forces of the Goguryeo Restoration Movement in those days.

In the Seokmun Battle that happened in a highland of Goguryeo in 672, however, Silla not only suffered a huge defeat, but also had its alliance with the forces of the Goguryeo Restoration Movement exposed to Tang. Silla dispatched an envoy to Tang and apologized for its alliance with the forces of the Goguryeo Restoration Movement.

In 674, Tang removed King Munmu from office and declared an attack to Silla under the cause of Bodeokguk, which involves the fact that “Silla accepted the forces of the Goguryeo Restoration Movement

and had them guard the land of Baekje.” Bodeokguk inherited the system and ancestral ceremonies of Goguryeo, and Ahn Seung was installed as a king of Goguryeo. As a result, Goguryeo was restored in reality. Tang must have looked out for the restoration of Goguryeo that it targeted over many years. In 675, Silla dispatched an envoy to Tang for an apology, right after which King Munmu's office was restored. However, Bodeokguk remained. There were several battles between Silla and Tang until the Gibeolpo Battle in 676.

The academic circles have believed that Silla's occupation of Baekje's highlands led to Tang's attack of Silla. The present study found out that the conflicts between Silla and Tang escalated gradually over the forces of the Goguryeo Restoration Movement during the Silla-Tang War and that Tang declared a full-scale war against Silla under the pretext of Bodeokguk in 674. At that time, Tang did not ensure its stable rule over the highlands in the Tibetan Empire and Goguryeo. Despite it, Tang was hasty to attack Silla because of Bodeokguk.

Previous studies on the Silla-Tang War examined the conflicts between Silla and Tang over the highlands of Baekje in the military aspect. The present study looked into diplomatic facts, as well, including diplomatic documents and the dispatch of an envoy to Tang for an apology. The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 new understanding and perspective of the Silla-Tang War.

keywords :

Bodeokguk, Silla-Tang War, wandering people of Goguryeo, Anseung.

